

편의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업 종	음식점				편의점	기념품 판매점	당구장	호프	호텔	은행
	구내식당	한식당	일식당	중식당						
영업장수	3	1	1	1	3	1	1	1	1	1
업 종	주유소	차량 정비소	위성방송 서비스	버스 운송업	창고 보관업	도소매점				
						부식 · 소모품 유통점	설비 · 자재 유통점	건설 공구 유통점		
영업장수	1	1	1식	1	1	1	1	1		1

#### 다. 보건의료시설과 건강보험제도

개성공업지구 내 진료시설로는 「그린닥터스 개성 협력병원」이 있다. 우리측 근로자를 위한 의료시설은 2005년부터 의료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종전까지는 남북한이 각각의 건물에서 각기 자기측 근로자를 진료하였으나, 2007년 4월 「그린닥터스」의 의료시설과 북한의 종합진료소 시설을 하나의 건물로 통합하여 「그린닥터스 협력병원」을 개원하였다. 이 병원에서는 남북한 진료소를 구분하여 각기 자기측의 근로자를 진료하되, 수술실·방사선실·검사실·초음파실은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 이전까지는 「그린닥터스 협력병원」(우리 근로자 대상 진료)에 8명의 상근요원(의사 3명, 응급구조사 1명, 북한 의사 2명, 북한 간호사 2명)과 순환진료진(치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남측 전문의가 요일별로 순회 진료), 북한 종합진료소에 13명(의사 6명, 간호사 4명, 운전기사 2명, 행정요원 1명)

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동 조치 이후 남측의 근무인력은 3명의 상근요원(응급구조사 2명, 행정요원 1명)과 출근의료진(내과·외과의 중 1명이 매일 출근), 순환진료진(치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요일별로 순회 진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우리측 근로자에 대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성공단에서 가장 가까운 일산 백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건강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2008년 7월 3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개정으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측 근로자의 건강보험료가 50% 경감되었으며, 같은 해 8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그린닥터스 진료 실적

(단위 : 명)

구분	전체	남측	북한	응급후송*
2005년	6,169	5,362	807	71
2006년	7,232	5,834	1,398	58
2007년	43,413	7,647	35,766	47
2008년	69,724	7,751	61,973	135

\* 응급후송은 남측 근로자에 대한 실적임

## 제4절 남북관광협력

### 1. 금강산 관광

2008년 상반기까지 금강산 관광사업은 양적·질적으로 활성화되었다. 금강산 승용차관광이 2008년 3월 17일부터 시작되어 1,397명이 승용차로 금강산을 방문하였으며, (주)에머슨퍼시픽이 운영하는 금강산골프장이 5월 28일 정식으로 개장되어 금강산 관광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7월 12일부터 금강산 관광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금강산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인원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99,966	1,934,662

한편,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우리나라의 신변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금강산관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남북은 2008년 2월 5일 개성에서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빠른 시일내에 금강산 관광지구에 「금강산관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어 「금강산관리위원회」 설립을 위한 후속회담 등이 개최되지 못하여 추가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2.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08년 7월 11일 새벽에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장전향 북한측 구역 내에서 북한 군인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보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2008년 7월 12일부터 금강산관광을 잠정 중단하였다.

한편 북한은 오히려 우리측에 책임을 전가하며 문제 해결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당국간 협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보장 대책을 마련한 후 관광을 재개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동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3. 개성관광

2005년 8월 현대아산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는 개성 시범관광에 합의하고 그해 8월과 9월 3차례에 걸쳐 시범관광을 실시하였으나, 본격적인 관광은 한동안 진행되지 못하였다. 2007년 11월 3일 현대아산과 아태간에 「남북관광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2007년 12월 초부터 개성지구에 대한 관광을 시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대아산은 2007년 12월 4일 통일부에서 개성관광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07년 12월 5일부터 개성관광을 시작하였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2008.7.11) 이후에는 안전요원을 기존의 7

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안전시설 보수 및 방북교육 강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였다. 2008년 10월 15일에는 개성관광객이 10만명을 넘어섰으며, 11월 29일 개성관광이 중단될 때까지 11만 549명의 관광객이 개성을 다녀왔다.



개성 선죽교 관광

개성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07. 12월	'0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08	7,427	9,049	8,540	11,400	11,536	11,953	12,168	11,607	7,447	5,770	7,348	6,304	110,549

\* 2005년도 시범관광 1,484명 포함시 총 112,033명

## 제5절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

2008년 남북 민간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당국간 관계가 경색되는 국면 속에서도 체육, 종교, 교육, 학술 등 각 분야별로 추진되었다.

사회문화분야 인적교류는 방북인원 2,557명(228건), 방남인원 172명(8건)으로 2007년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고 신규 사회문화협력사업의 승인 건수는 3건으로 지난해 20건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교류 자체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남북공동행사의 경우 「6.15 공동위원회」 차원의 「6.15 민족통일대회」와 언론·농민·여성·교육 등 부문별 공동행사가 진행되었다. 문화예술분야는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공연이 이루어졌으며, 「윤이상 평양음악회」, 「통일문학」 공동발간 등이 성사되었다. 교육학술분야는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 북한 IT 인력 교육,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등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종교분야에서는 평양 봉수교회 헌당예배, 장충성당 미사, 평화통일기원 기도회 등 대규모 남북 공동기도회가 성사되었다. 체육분야에서는 북한 레슬링·유도·축구대표팀 방한, 남한 유소년 축구팀 방북행사 등이 진행되었다.

### 1. 남북공동행사

2000년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은 2001년부터 해마다 6.15 및 8.15를 계기로 남북을 오가며 민간차원의 공동행사를 개최하여 왔다.

2008년 「6.15 남북공동행사」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우리측 249명, 북한측 100명, 해외측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행사의 공식 명칭은 「6.15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로, 6월 15일의 본 대회와 공동사진전에 이어 6월 16일 공동위원장 회의, 폐막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또한, 「6.15공동선언실천 남·북 위원회」간 부문별 교류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6.15 남측위원회 산하 9개 분과 중 노동·청년학생·농민·교육·학술·여성·언론 등 7개 분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그간 대규모 행사 위주로 진행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실현가능한 소규모 사업들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2008년도 8.15공동행사와 10.4선언 1주년 기념행사는 남북 합의에 따라 각자 개최하였다.

## 2. 문화·예술 교류

지난해에 비해 문화예술분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는 못하였으나 분단 이후 남북한 문인이 공동으로 만든 최초의 문학잡지인 『통일문학』 창간호가 2008년 2월 5일 평양에서 5,000부가 발행되어 국내에 2,000부가 반입되었고, 제2호도 2008년 7월 31일 발행되었다. 또한 2008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27차 「윤이상 음악회」에서 남북의 음악가가 협연하였다.

한편,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공연이 2008년 2월 26일 동평양 대극장에서 있었다. 공연에서 무대 양 옆에 미국 성조기와 북한기를 게양하고

북한 국가, 미국 국가 등이 연주되었다. 뉴욕필은 2월 27일 오전에는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조선국립교향악단과 미북 실내악 협연을 펼쳤다. MBC는 동 공연에 중계장비를 지원하였다.

## 3. 역사·학술 교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서 2007년부터 추진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는 2008년에도 계속 진행되었는데, 2008년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남북의 전문가 등 총 60여명이 참가하여 만월대 서부건축군 중 경령전 구역 3,000㎡를 남북 공동작업으로 발굴하였다. 이를 통해 경령전 동쪽의 13여 개의 건물위치를 확인하였으며, 유물 총 3,600여 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발굴조사에는 2007년 1차 발굴에 참가하였던 남한의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등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  
(2008.11.4~12.23)



발굴유물



또한, 남북역사학자의 남북역사용어 공동연구사업도 꾸준히 진행되어 2008년 4월 25일에서 26일까지 「남북역사용어 공동연구 1차 학술회의」를 개성에서 개최하였으며, 2008년 6월 19일에서 20일까지 2차 학술회의를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동 사업은 임진왜란에서 3.1운동까지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관련 용어 300여 개를 남북공동으로 선정·집필하는 것으로, 역사용어는 남북이 공동으로 선정하고, 집필은 남북이 따로 시행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수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차례 학술회의를 통해 총 12개의 주제를 발표하고 300건의 역사용어에 대한 원고를 남북이 교환하였다.

남북의 언어를 통합·정비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08년도에도 총 네 차례에 걸쳐 분기별 남북공동편찬회의를 개최하는 등 당초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1차로 38만여 개의 올림말을 선정하였으며, 남·북·해외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새 어휘 약 8만 7,000여개를 조사·발굴 하였다.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2008년에도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우리민족인재양성센터가 중국 단둥에서 추진중인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교육사업이 계속 진행되었다. 1차 교육은 2008년 6월 9일에서 8월 15일까지(30명), 2차 교육은 9월 1일에서 12월 5일까지(30명) 추진되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280명이 임베디드(Embedded), 네트워크 구축, 자바(Java) 과정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생들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대 등 대학생 및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 4. 체육 교류

2008년도 체육분야 교류는 전년도에 비해 축소되었으나, 국제경기 참가를 위해 북한 선수단이 남한을 방문한 사례가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북한 레슬링 선수단 15명은 「2008 아시아 시니어 레슬링 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하였고, 북한 유도 선수단 17명도 「2008 아시아 유도 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하였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체육 교류는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남북 경기」로서, 6월 22일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북한대표팀은 6월 19일 방남하여 23일까지 머물렀다. 그러나, 당초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남북 경기」 및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남북 경기」는 3월 26일과 9월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어 우리 대표팀이 북한에서 경기를 갖지는 못하였다.



남북 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교환 경기 (2008.6.14~26, 10.8~18, 평양)

또한 우리측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북한의 4.25체육단이 「남북 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교환경기」를 위해 우리측 유소년축구선수단이 방북하여 경기를 가졌다. 2008년 6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30명의 선수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네 차례,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50명의 선수단이 방북하여 세 차례의 친선경기를 가졌다. 이 밖에 「2008 남북 태권도 교류행사」가 6월 28일에서 7월 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사)ITF태권도협회 남북대표단 60명이 방북하여 북한의 태권도 시범공연, 남한사범의 북한 선수에 대한 태권도 기술교육 실시 등 교류행사를 진행하였다.



2008 남북 태권도 교류행사(2008.6.28~7.1, 평양)

## 5. 종교 교류

2008년도 종교분야 교류는 전년도에 비해 방북인원이 다소 줄어들긴 하였으나 남북이 공동으로 복원한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공동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대규모 방북 종교행사가 추진되었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그 동안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북한지역에서의 종교시설 복원이나 남북협력사업은 거의 추진되지 못하였다.

기독교계의 교류는 방북행사 위주로 추진되었다. (사)기쁜소식에서는 2008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 봉수교회에서 헌당예배를 개최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공동으로 「2008 평화통일 남북교회 기도회」를 평양 봉수교회에서 개최하여 '6.15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회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동 기도회는 매년 금강산에서 개최해 왔으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방문이 여의치 않자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창립 34주년과 장충성당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공동으로 「평화통일기원 미사」를 봉헌하고자 북한을 방문하였다. 방북기간 중 평양 장충성당에서 진행된 평화통일기원 미사에는 우리측의 신부 및 신도 등 96명과 북한의 장충성당 신도 등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불교계에서도 각 종단별로 접촉과 교류는 계속되었으나 전년에 비해 활발하지는 못하였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8월 5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북한조선불교도연맹과 공동으로 해외에 불법 반출된 문화재 환수 문제를 논의하였다. 동 방북에서 중앙신도회는 조선불교도연맹과 조선